

SVB 발 미국 준대형은행 부실 사태로 본 예금보험 및 금융감독 제도 개선 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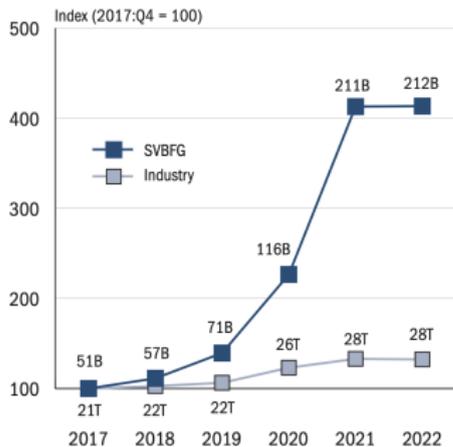
이기영

성균관대학교 경제학과

2023년 11월 30일

- ▶ 지난 2023년 3월 SVB의 파산은 금융시장과 학계에 적잖은 충격을 안겼음.
 - ▶ Signature Bank, First Republic Bank 등 준대형, 중소은행의 연쇄 파산.
 - ▶ 미 금융당국은 시스템 리스크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한 긴급조치를 시행.
 - ▶ 2007 - 2009년 금융위기 이후 재편된 금융감독 시스템에도 불구하고 위기 발생.
 - ▶ 고전적인 Diamond and Dybvig (1983) 형태의뱅크런(bank runs) 발생.
- ▶ 금융 안전망의 개선을 위해 SVB 사태를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성이 대두.
 - ▶ SVB의 위험관리 및 내부통제 상 문제점을 고찰하여 감독/검사 중점 사항을 점검.
 - ▶ 감독 실패 요인을 검토하여 사태 재발을 위한 감독/정리 체계 개선 방향을 수립.

Figure 3. SVBFG and banking industry total assets



Note: The key identifies lines in order from top to bottom. All values indexed to 100 at year-end 2017. Values are as of year-end. Values are in billions of dollars for SVBFG and in trillions of dollars for the industry. Industry aggregate includes all top-holder firms.

Source: FR Y-9C and Call Report.

- ▶ 2020년 COVID-19 대유행 이후 급격한 성장
 - ▶ 정부+중앙은행의 신용확대 정책
 - ⇒ 자본조달비용 ↓
 - ⇒ VC, IPO 등 기업투자금 유치 ↑↑
 - ⇒ SVB에 기업자금 예치 ↑
- ▶ SVB는 장기국채와 agency MBS에 집중 투자
 - ▶ 장단기 금리차를 활용한 수익추구 전략
 - ▶ 만기보유증권 기준 실효만기: 6.2년,
 - ▶ Agency MBS 기준 실효만기: > 10년.

▶ SVB의 예금부채구성 (고객 특성):

Figure 4. SVBFG client funds by client type

Total client funds by client niche¹

Early stage technology

Technology

Early stage life science/
healthcar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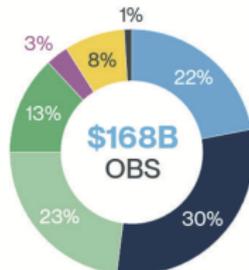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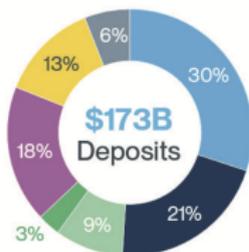
Life science/
healthcare

International²

U.S. Global
Fund Banking

Private Bank

Other



Note: All figures as of December 31, 2022 unless otherwise noted.

1. Represents management view of client niches.

2. International balances do not represent foreign exposure as disclosed in regulatory reports. Includes clients across all client niches and life stages, with International Global Fund Banking representing 3% of total client fund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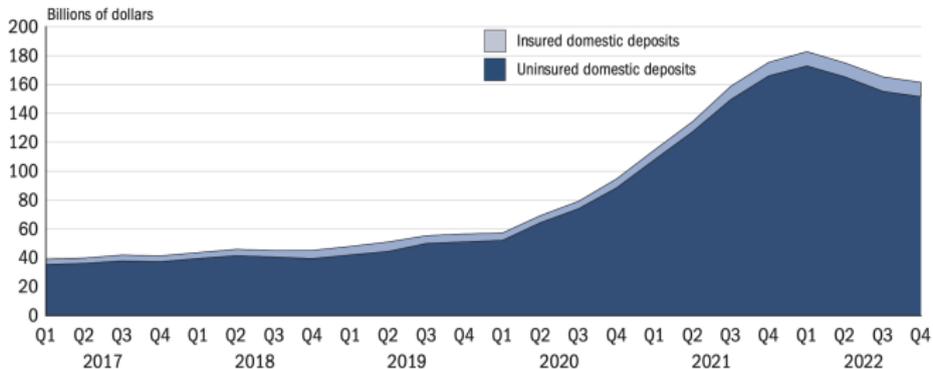
3. Based on deposit rates and total deposit balances at December 31, 2022.



Source: SVBFG 2022:Q4 financial highlights, January 19, 2023.

▶ SVB의 예금부채구성 (보호/비보호):

Figure 7. SVB deposit insurance cover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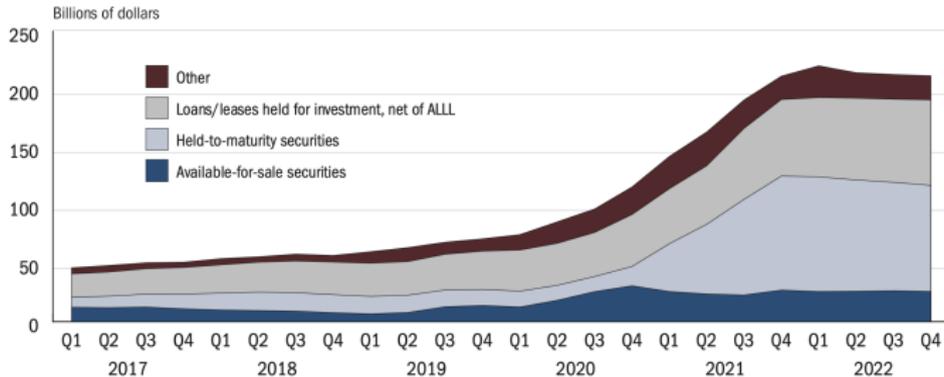


Note: The key identifies areas in order from top to bottom.

Source: Call Report.

▶ SVB의 자산구성:

Figure 8. Composition of SVBFG assets



Note: The key identifies areas in order from top to bottom. ALLL is allowance for loan and lease losses.

Source: FR Y-9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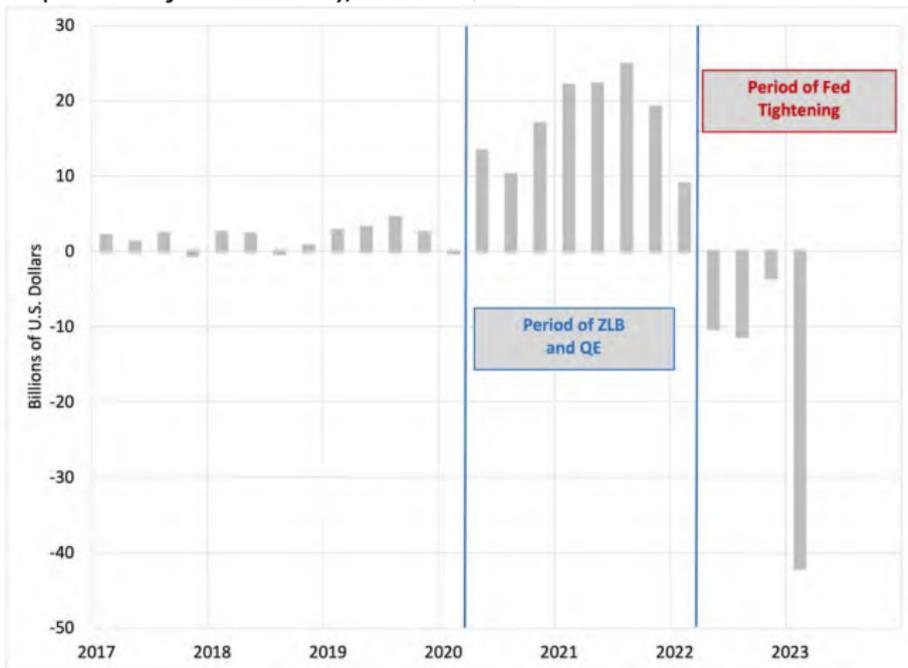
- ▶ 2022년 하반기 이후로 긴축 통화정책 수익성과 유동성 동반 악화.
 - ▶ 보유 장기자산 평가 손실 누적.
 - ▶ 고액 비보호 예금 고객들의 자금 유출 심화.
 - ▶ SVB 부실위험에 따른 사업자금 증발 우려.
 - ▶ 고금리 장기화 우려에 따른 “deposit beta” 증가.

- ▶ 2022년 하반기 이후로 긴축 통화정책 수익성과 유동성 동반 악화.
 - ▶ 보유 장기자산 평가 손실 누적.
 - ▶ 고액 비보호 예금 고객들의 자금 유출 심화.
 - ▶ SVB 부실위험에 따른 사업자금 증발 우려.
 - ▶ 고금리 장기화 우려에 따른 “deposit beta” 증가.
- ▶ SVB의 자산구조조정 및 유동성 확보 정책으로뱅크런 촉발
 - ▶ \$210억 규모의 매도가능증권을 \$18억에 처분 + \$22.5억 유상증자 발표
 - ▶ 예치자금의 증발을 우려한 고액 예금자 다수 인출 → 2023.3.9 하루에만 \$400억 순인출
 - ▶ (2023.3.10) SVB 폐쇄 및 FDIC 청산관리인 지정

- ▶ 2022년 하반기 이후로 긴축 통화정책 수익성과 유동성 동반 악화.
 - ▶ 보유 장기자산 평가 손실 누적.
 - ▶ 고액 비보호 예금 고객들의 자금 유출 심화.
 - ▶ SVB 부실위험에 따른 사업자금 증발 우려.
 - ▶ 고금리 장기화 우려에 따른 “deposit beta” 증가.
- ▶ SVB의 자산구조조정 및 유동성 확보 정책으로뱅크런 촉발
 - ▶ \$210억 규모의 매도가능증권을 \$18억에 처분 + \$22.5억 유상증자 발표
 - ▶ 예치자금의 증발을 우려한 고액 예금자 다수 인출 → 2023.3.9 하루에만 \$400억 순인출
 - ▶ (2023.3.10) SVB 폐쇄 및 FDIC 청산관리인 지정
- ▶ SVB의 파산은 비슷한 규모의 준대형/중소은행의뱅크런을 야기.
 - ▶ Signature Bank와 First Republic Bank의뱅크런 발생
 - ▶ FRB와 FDIC는 시스템 리스크 발생 가능성을 우려하여 시장개입 결정.
 - ▶ Signature Bank와 First Republic Bank 예금 전액 보호
 - ▶ 이 외 준대형/중소은행 예금 전액 보호 암시
 - ▶ 2023년 4월 Signature Bank와 First Republic Bank 파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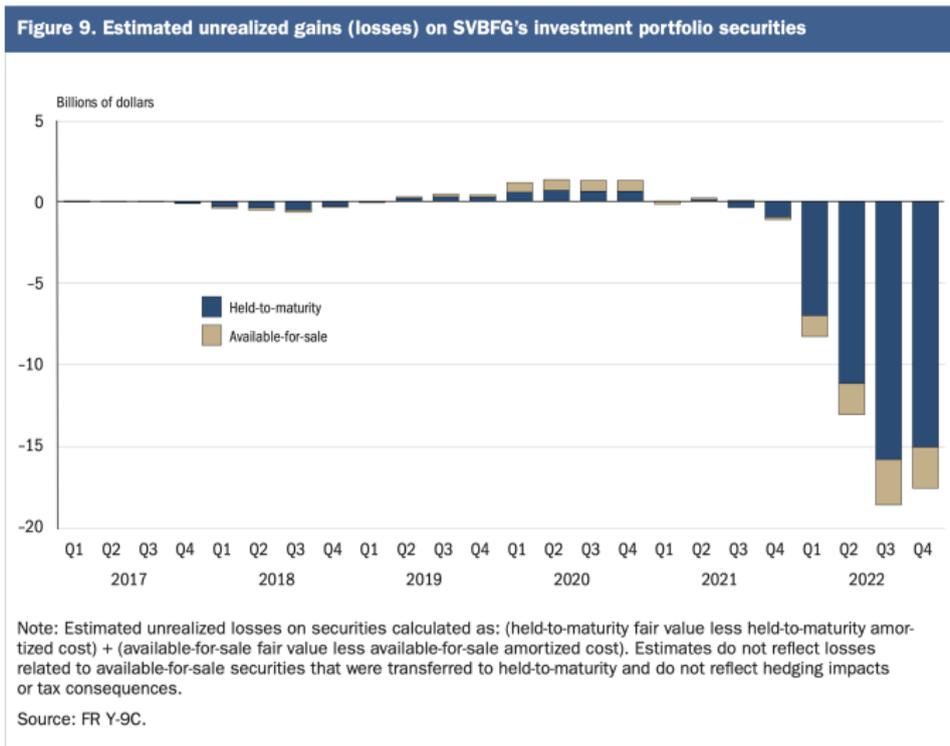
▶ SVB의 예금순유출입 현황 (2017Q1 - 2023Q1):

Figure 1: Silicon Valley Bank: Quarterly Change in Deposits (Billions of U.S. Dollars), 2017-1Q 2023



Source: Call Reports. The estimate for 1Q 2023 is based on Silicon Valley Bank's mid-quarter update.

▶ SVB 보유 자산의 미실현 이익/손실 (2017Q1 - 2022Q4):



SVB 사태의 원인

SVB의 위험관리 및 내부통제 부실

- ▶ 금리 역마진 위험 경시.
 - ▶ 금리 인상에 따른 평가 손실 규모를 과소평가.
 - ▶ 오히려 금리 인상 시 높은 순이자이익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
 - ▶ 높은 비중의 변동금리 대출 자산, 고정금리/무이자 예금을 근거로 고금리 선호
 - ▶ 금리 인상 시 수익 증가로 나타나는 NII 기준 위험평가 모형 중시,
 - ▶ but 중장기적 자산-부채 규모 변동을 측정하는 EVE 위험평가 경시.
 - ▶ Fed의 기준금리 인상 후 금리하락 조정을 염려하여 금리 위험 헷지 포지션 정리.
 - ▶ 과도한 금리 위험 추구는 이후 보유자산 평가손실 급증의 한 요인이 되었음.

SVB 사태의 원인

SVB의 위험관리 및 내부통제 부실

- ▶ 부실한 유동성 관리:
- ▶ 2019년 이전 저금리 장기화 기조 당시 금융소비자의 예치 행태가 이어진다고 가정.
 - ▶ 내부 유동성 스트레스 테스트(ILST) 결과 유동성 부족 가능성 인지.
 - ▶ 하지만 유동성 부족 추산 결과를 운영상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으로 치부.
 - ▶ 예금자들의 계좌 이동 비용이 높을 것으로 오판하였음.
 - ▶ 2022년 이후 고금리 기조가 지속되면서 예금 순인출이 급증함 (“Deposit beta”).
≈ 1987년 S & L 대규모 부실사태
- ▶ 비보호 고객 예금 대규모 유출에 대비한 적절한 유동성 확보 전략 부재.
 - ▶ 긴급 상황에 자금을 융통할 Repo 계획 부재.
 - ▶ The Fed's Discount Window 대출 제공을 위한 사전 준비 부재.
 - ▶ 대출 필요 금액 추산 (X), 담보자산 사전 설정 (X), 연준 사전승인 (X), 모의 훈련 (X)
 - ▶ Why? No regulatory benefits while suffering stigma.

SVB 사태의 원인

SVB의 위험관리 및 내부통제 부실

- ▶ 2022년 5월 SVB의 내부 유동성 스트레스 테스트(ILST) 결과
cf. 2022년 8월 ILST: \$(18)B in D30 and \$(23)B in D90.

Figure 19. Summary of SVBFG internal liquidity stress test

Cumulative Liquidity Impacts as of May 31, 2022⁽²⁾

Scenario	Combined Scenario			
	O/N	D30	D90	1Y
Inflows	\$23B	\$67B	\$113B	\$114B
Outflows	\$8B	\$79B	\$116B	\$111B
Net Impact (Operational Shortfall)	\$14B	\$(12)B	\$(4)B ⁽³⁾	\$4B

Source: SVBFG internal material, June 21, 2022.

SVB 사태의 원인

SVB의 위험관리 및 내부통제 부실

- ▶ 자산규모 대비 부실한 위험관리 & 내부통제 체계

SVB 사태의 원인

SVB의 위험관리 및 내부통제 부실

- ▶ 자산규모 대비 부실한 위험관리 & 내부통제 체계
- ▶ 위험관리 지도부 공백: 2022년 4월 해임 후 12월까지 CRO 부재.
 - ▶ 감독 당국 권고로 책임자 교체를 시도했으나 적임자 물색 난항으로 지체됨.
 - ▶ 경영진의 위험관리 및 내부통제 체계 중요성에 대한 이해 부족.

SVB 사태의 원인

SVB의 위험관리 및 내부통제 부실

- ▶ 자산규모 대비 부실한 위험관리 & 내부통제 체계
- ▶ 위험관리 지도부 공백: 2022년 4월 해임 후 12월까지 CRO 부재.
 - ▶ 감독 당국 권고로 책임자 교체를 시도했으나 적임자 물색 난항으로 지체됨.
 - ▶ 경영진의 위험관리 및 내부통제 체계 중요성에 대한 이해 부족.
- ▶ 부실한 위험관리 실태가 드러나도 근본적 개선 없이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됨.
 - ▶ 금리변동 위험: EVE 내부 모형 가정을 변경하여 금리 역마진 손실을 축소 추산하였음.
 - ▶ 유동성 위험: ILST 모형 가정을 변경하여 초기 유동성 부족 규모를 축소한 시나리오 도입.

SVB 사태의 원인

SVB의 위험관리 및 내부통제 부실

- ▶ 자산규모 대비 부실한 위험관리 & 내부통제 체계
- ▶ 위험관리 지도부 공백: 2022년 4월 해임 후 12월까지 CRO 부재.
 - ▶ 감독 당국 권고로 책임자 교체를 시도했으나 적임자 물색 난항으로 지체됨.
 - ▶ 경영진의 위험관리 및 내부통제 체계 중요성에 대한 이해 부족.
- ▶ 부실한 위험관리 실태가 드러나도 근본적 개선 없이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됨.
 - ▶ 금리변동 위험: EVE 내부 모형 가정을 변경하여 금리 역마진 손실을 축소 추산하였음.
 - ▶ 유동성 위험: ILST 모형 가정을 변경하여 초기 유동성 부족 규모를 축소한 시나리오 도입.
- ▶ 금리 인상에 대한 자산 평가 손실규모의 공개를 회피하기 위한 회계/감독 기준 악용
 - ▶ 보유 자산의 상당 규모를 만기보유증권(HTM)으로 분류하여 평가손실액 반영 지체.
 - ▶ 기타포괄손익누계액(AOCI)의 위험 대비 자기자본 산입 제외 규정을 적용.
 - ▶ 2019년 중소은행에 한해 AOCI 산입 제외 규정 도입을 허가.

SVB 사태의 원인

SVB의 위험관리 및 내부통제 부실

- ▶ 자산규모 대비 부실한 위험관리 & 내부통제 체계
- ▶ 위험관리 지도부 공백: 2022년 4월 해임 후 12월까지 CRO 부재.
 - ▶ 감독 당국 권고로 책임자 교체를 시도했으나 적임자 물색 난항으로 지체됨.
 - ▶ 경영진의 위험관리 및 내부통제 체계 중요성에 대한 이해 부족.
- ▶ 부실한 위험관리 실태가 드러나도 근본적 개선 없이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됨.
 - ▶ 금리변동 위험: EVE 내부 모형 가정을 변경하여 금리 역마진 손실을 축소 추산하였음.
 - ▶ 유동성 위험: ILST 모형 가정을 변경하여 초기 유동성 부족 규모를 축소한 시나리오 도입.
- ▶ 금리 인상에 대한 자산 평가 손실규모의 공개를 회피하기 위한 회계/감독 기준 악용
 - ▶ 보유 자산의 상당 규모를 만기보유증권(HTM)으로 분류하여 평가손실액 반영 지체.
 - ▶ 기타포괄손익누계액(AOCI)의 위험 대비 자기자본 산입 제외 규정을 적용.
 - ▶ 2019년 중소은행에 한해 AOCI 산입 제외 규정 도입을 허가.
- ▶ 감독 당국의 경영개선 권고에도 근본적 개선 없이 소극적 이행에 급급.
 - ▶ 준대형은행(LFBO)으로 분류된 이후에는 그마저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음.

SVB 사태의 원인

SVB의 위험관리 및 내부통제 부실

▶ SVB의 자산-부채 구성의 특성 (2022년 Q4)

Table 1. Peer comparison, 2022:Q4

Percent

Metric	SVBFG	LBOs
Loans as a percentage of total assets	35	58
Securities as a percentage of total assets	55	25
Held-to-maturity securities as a percentage of total securities	78	42
Total deposits as a percentage of total liabilities	89	82
Uninsured deposits as a percentage of total deposits	94	41
Common equity tier 1 capital as a percentage of total risk-weighted assets	12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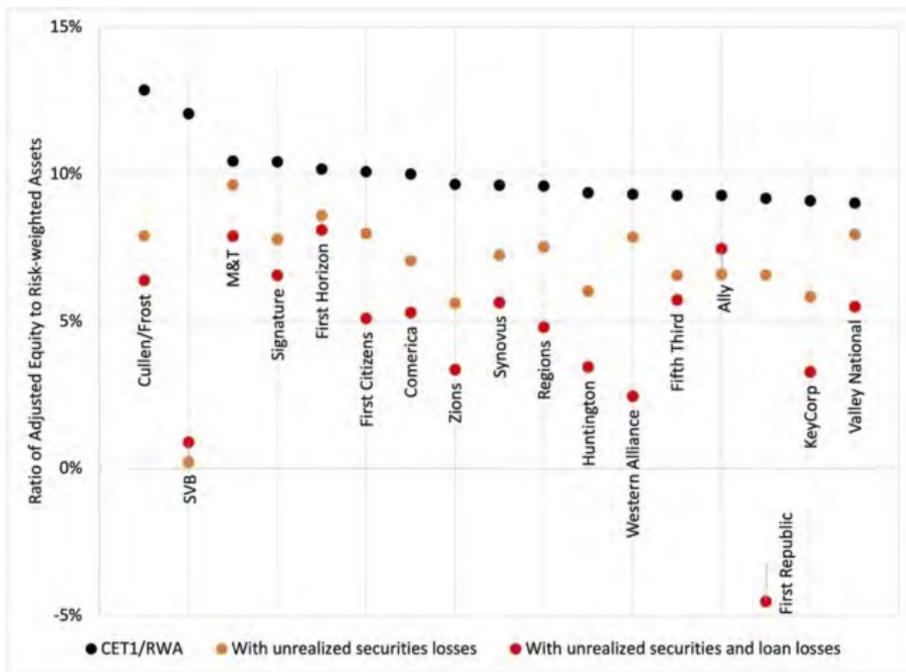
Note: Values for large banking organizations (LBOs) represent weighted averages of all U.S. bank holding companies and savings & loan holding companies with total assets greater than \$100 billion, with the exception of banking organizations in the Large Institution Supervision Coordinating Committee (LISCC) supervisory portfolio.

Source: FR Y-9C and Call Report.

SVB 사태의 원인

SVB의 위험관리 및 내부통제 부실

▶ SVB 및 준대행/중소형 은행의 미실현 평가손실 산입 시 BIS 비율 변화 (2022년 Q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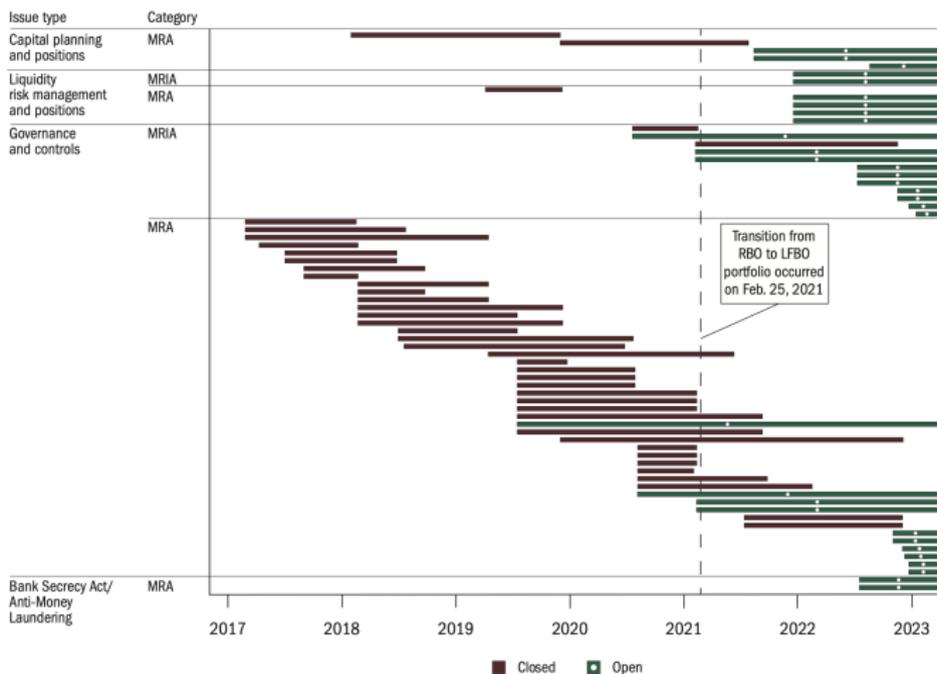


SVB 사태의 원인

SVB의 위험관리 및 내부통제 부실

▶ SVB의 경영개선권고 및 시정 현황

Figure 12. Timeline of SVBFG/SVB supervisory issues (MRAs/MRIAs)



SVB 사태의 원인

건전성 감독 실패

- ▶ SVB 자산규모 대비 감독 역량 부족
- ▶ SVB 급성장에 따른 감독기준 전환이 매끄럽게 이루어지지 않음.
 - ▶ 예금 급증으로 2021년 2월 중소(RBO)에서 준대형(LFBO)으로 감독기준 변경 조건 충족.
 - ▶ 감독당국은 SVB의 증가세를 예측못해 부서 이관 작업이 지체됨.
 - ▶ 연례 평가에 집중한 RBO 부서 vs. 감독 전담 인력 구성 지체 LFBO 부서
 - ▶ 부서 간 정보 공유 부족으로 LFBO 감독업무 효율성 저해.
 - ▶ LFBO 부서는 SVB 내부통제 부실 정황을 즉각 인지하고도 등급 변경을 주저함.
- ▶ 예산 및 업무 조정과 COVID-19 대유행 등으로 건전성 감독 인력 투입 부족.
 - ▶ 2016 - 2022년 은행 업계 총자산은 37% 증가한 반면 동기간 감독 인력은 3% 감축.
 - ▶ 총자산 대비 SVB 대상 건전성 감독 투입 인력은 2017년에 비해 현저히 감소

▶ 은행 총자산 및 감독 부서 규모 추세 (2008 - 2022)

Figure 13. Supervision staffing relative to banking industry asse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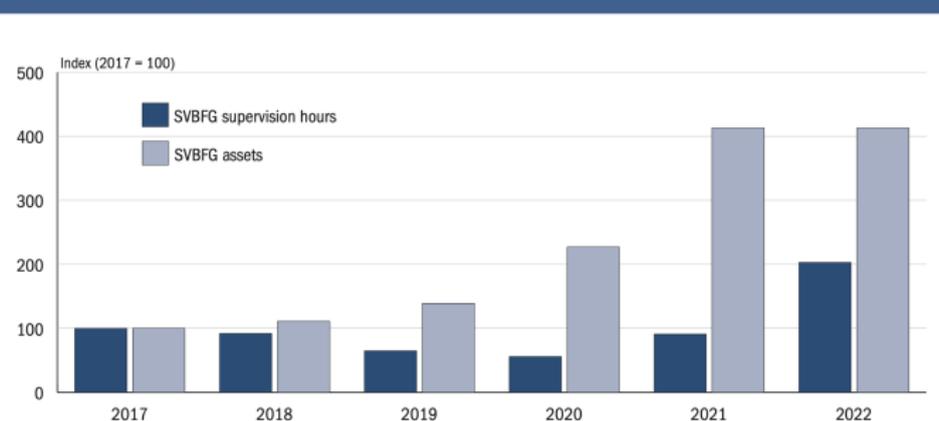


Note: All values indexed to 100 in 2008. The positions shown combine different staffing statistics for the Federal Reserve Banks and the Board of Governors of the Federal Reserve System. Reserve Bank numbers presented include the average number of personnel (ANP) or full-time equivalents (FTE) conducting supervision and regulation functions, including consumer compliance. They are a proxy for staffing levels but do not reflect actual positions. Board numbers presented include filled positions in the Division of Supervision and Regulation, excluding consumer compliance. Banking industry assets include all top-holder firms.

Source: Internal Federal Reserve staffing databases, FR Y-9C, and Call Report.

▶ SVB 총자산 규모와 감독 투입 인력 추세 (2017 - 2022)

Figure 14. SVBFG supervision hours relative to assets



Note: The key identifies bars in order from left to right. All values indexed to 100 in 2017. SVBFG supervision hours reflect actual hours spent on scheduled supervisory activities of SVBFG.

Source: Internal Federal Reserve staff time databases and FR Y-9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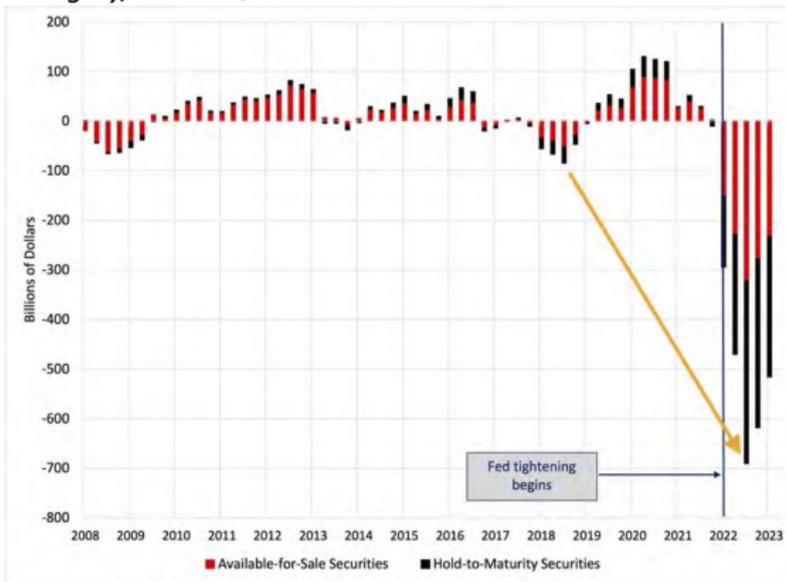
SVB 사태의 원인

건전성 감독 실패

- ▶ 건전성 감독 완화에 따른 공백 지대 발생
 - ▶ 2018년 EGRRCPA 통과 \implies 총자산 \$100B - \$250B 은행 건전성 감독 완화
- ▶ EGRRCPA 통과 후 변동사항 (SVB 대상)
 - (i) 자본적정성 규제:
 - ▶ No advanced approaches, leverage ratio, or AOCI reflection
 - (ii) 스트레스 테스트 규제
 - ▶ Supervisory stress testing only,
 - ▶ Frequency: annual \rightarrow biennial
 - ▶ Stress test for SVB was to be conducted in 2024 ...
 - (iii) 유동성 규제
 - ▶ No LCR or NSFR
 - ▶ liquidity stress tests: monthly \rightarrow quarterly
 - ▶ liquidity stress test management: fully enhanced \rightarrow tailored
 - (iv) 정리계획 의무 면제

▶ 은행 자산 미실현 이익/손실 추세

Figure 3: FDIC-Insured Banks: Unrealized Gains/Losses (Billions of U.S. Dollars) on Investment Securities by Accounting Category, 2008-1Q 2023



Notes: Total unrealized gains (or losses when negative) on investment securities.

Source: FDIC Quarterly Banking Profile (First Quarter 2023), Chart 7.

SVB 사태의 원인

건전성 감독 실패

- ▶ 감독당국 내 경직된 의사결정 체계와 통화정책 간 부조화
- ▶ 트럼프 행정부 정책 및 COVID-19 대유행으로 규제 완화 기조 고착화
 - ▶ 건전성 감독 강화 시 신용 위축을 우려
 - ▶ COVID-19으로 인한 현장 검사 및 은행 경영진과의 대면 소통 부족
- ▶ 담당 부서 이관 후 SVB에 대한 감독당국의 대처가 지체됨.
 - ▶ 위험관리/내부통제 소홀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제재나 평가등급 조정이 어려웠음.
 - ▶ LFBO 이관 직후 위험관리 소홀 정황을 포착하고도 CAMELS 등급 조정을 연기.
 - ▶ ILST, EVE 방법론의 가정 완화에 대한 제재 혹은 위험관리 평가 등급 하향 지체.
 - ▶ 경쟁기관과의 비교분석을 통해 유동성 부족 수준을 입증할 때까지 감독조치 연기.
 - ▶ 원론적이고 미온적인 경영개선권고(MRA) 이상의 감독 조치가 내려지지 않음.
 - ▶ SVB의 높은 수익성을 견실한 유동성 확보 능력으로 오판함.
 - ▶ SVB는 LFBO으로 분류된 이후 내려진 경영개선권고 조치의 이행도 소홀히 하였음.

SVB 사태의 원인

건전성 감독 실패

▶ SVB의 CAMELS 등급 변화 추이

Report disposition date	Capital rating	Asset quality rating	Management rating	Earnings rating	Liquidity rating	Sensitivity to market risk rating	Composite rating
3/7/17	2	2	2	2	1	2	2
2/14/18	2	2	2	2	1	2	2
3/6/19	2	2	2	2	1	2	2
4/13/20	2	2	2	2	1	2	2
5/3/21	2	2	2	2	1	2	2
8/17/22	2	2	3	2	2	2	3

Note: Shading indicates a change in ratings.
Source: Internal Federal Reserve supervisory databases.

- ▶ 핵심 정책 현안: 건전성 감독 실패 (O), 낮은 예금보호한도 (X)
 - ▶ 초대형 은행은뱅크런을 겪지 않았음.
 - ▶ 비보호 고액 예금 비중은 높은 은행은 중소/준대형 은행에 국한.
- ▶ 준대형 규모 은행 (LFBO)에 대한 건전성 감독을 강화할 필요
 - ▶ 2018년 이후 완화된 건전성 감독 규제 대부분이 SVB의 부실과 밀접한 연관이 있음.
 - ▶ 예금자 패닉의 사례를 볼 때 이들 은행의 부실로 인한 시스템 리스크 가능성이 높음.
 - ▶ 따라서 감독기준을 대형은행에 준하는 수준으로 상향할 필요가 있음.
 - ▶ 미실현 자산 평가 손실이 높았음에도 초대형 은행에서는 뱅크런이 없었음.
- ▶ 시사점: 자산 규모와 부실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유사 금융기관 간 감독 격차를 최소화할 필요.

- ▶ 감독 시스템의 유연성을 강화할 필요
 - ▶ 2022년 하반기 이후 “New Normal”에 부합하는 건전성 감독기준 확보 필요
 - ▶ “Deposit beta”의 증가, 자산 평가 가치의 급속한 하락 등에 대비할 필요
 - ▶ 공급망 약화에 따른 인플레이션 등이 은행 건전성에 미칠 파급효과도 고려할 필요
 - ▶ 감독 대상 은행의 특수성과 자산증감세를 면밀히 고려한 감독 업무의 효과적 분장 필요
 - ▶ 감독기관간, 기관 내 부서 간 긴밀한 교류, 정보 공유를 통해 업무 공백 최소화
 - ▶ 건전성 감독의 기본 원칙에 충실한 업무 책임 분배 필요
 - ▶ 부실한 위험관리의 정황을 신속히 포착하고 제재, 소통 등을 통해 개선을 유도
 - ▶ 자산/수익성이 급증하수록 고위험 추구할 가능성이 높음을 항상 염두할 필요

- ▶ 은행의 재무 건전성/유동성 위험관리 유인을 제공할 필요
 - e.g. DW 대출의 경우 높은 행정비용과 낙인효과로 인해 사전 준비를 꺼리는 경향이 있음.
 - ▶ 사전 확보된 DW 대출 금액을 저위험 고유동성 자산(HQLA)로 인정할 수 있음.
 - ▶ 호주의 Committed Liquidity Facilities (CLF) 참고
- cf. SVB 사태 이후 Fed의 반성적 태도에 주목할 필요.
 - ▶ 감독 실패 요인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개선 방향을 제시한 보고서 발간.
 - ▶ SVB 파산: 2023년 3월 10일, 보고서 발간 시점: 2023년 4월 28일.

▶ SVB의 고액 비보호 예금의 순유출에 대응하기 위한 예금보험제도 개선안:

(i) 현행 예금보호한도 유지 (status quo);

(ii) 기업 결제 계좌에 대한 별도 보호한도 설정;

- ▶ 특히 금융접근성이 낮은 SME를 대상으로 보호한도를 설정하는 것을 고민할 필요.
- ▶ 문제점: 목표기금과 예금보험료율의 인상이 불가피. 가계 예금자들에게 보험료 전가.

(iii) 예금 전액 보호

- ▶ 뱅크런 문제 완전 해소.
 - ▶ 문제점: 목표기금과 예금보험료율의 막대한 인상이 불가피. 도덕적 해이 문제 악화
- ▶ 유사시 신속한 정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리계획을 상시 수립, 감독할 필요
- ▶ SVB의 정리계획 미비로 인해 확대된 기금 손실에 주목할 필요.

▶ 참고문헌:

- (1) Acharya, Viral V. *et al.* (2023). "SVB and Beyond: The Banking Stress of 2023." NYU Stern White Paper, July 2023.
- (2) Board of Governors of the Federal Reserve System (2023). "Review of the Federal Reserve's Supervision and Regulation of Silicon Valley Bank." April 2023.
- (3) Federal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 (2023). "Options for Deposit Insurance Reform." May 2023.